

“5극 3특 창업정책 필요”

민주 이원택 의원, “중기벤처부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 광역화 추진 균형발전 전략 무시한 처사... 창업 사다리 행정 편의로 끊어선 안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부합하는 창업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전북지역 창업준비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광역화 추진은 균형발전 전략을 무시한 처사라며 ‘창년과 소상공인의 창업 사다리를 행정 편의로 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창업준비생들은 이 의원에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호남권 광역화 움직임과, 프로그래밍 지역 창업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부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초기 소상공인에게 교육·실습·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창업 프로그램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주관기관 광역화 기조에 대해 “광역화는 행정 효율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며 “전북 창업자들에게는 접근성 저하와



실질적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부 차관과 통화해 “전북을 5극인 호남권에 단순 편성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전남·광주와의 경쟁과 긴장 구조 속에서 정책 지원 배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전북이 호남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 취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전북은 5극이 아닌 3특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인정받아 경쟁 구조가 아닌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별도의 정책 기조와 운영 체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창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이 이미 신사업창

업사관학교 운영 역량과 성과를 충분히 입증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북 운영기관은 지난 3년간 최우수 성과를 거두며 지원 규모 확대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성과가 검증된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에는 아직 기업가정신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라이온타운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주관기관 유지는 물론, 전북형 창업 거점 인프라를 구축해 교육·보육 성장으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가톨릭농민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청취한 가운데 간담회에서 △전북 농업·농어촌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 △국가 농어업정책 결정 시 농어민 참여 △소농·고령농 보호 중심의 농정 전환 △업체류, 약용식물 등으로 확산하는 농업구조 개편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권희성기자



새해 도정 운영방향 발표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림) 2026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6월 7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사람 살피는 행정으로 김제 새도약” | 강영석 전 부시장, 김제시장 도전

강영석 전 익산시 부시장(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 5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전 부시장은 이날 “김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민과 함께 열겠다”며 “고향 김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김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리더십이라며, 수직적 지시 중심 행정이나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수평적·소통형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 및 인접 시·군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김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성덕면 출신인 강 전 부시장은 김제중앙초·중학교와 전주교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 김제시 보건소 관리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장, 익



산시 부시장과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을 역임하며 보건·복지·교육 행정을 두루 경험한 종합 행정가다.

코로나 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헌신적인 활동으로 “전북의 정은경”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을 선보여 도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 근무시절에는 도청 노조 선정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에 선정되는 등 서번트 리더십이자 수평적 리더십의 표본으로 평가받은 바도 있다.

그는 김제의 미래 비전으로 효율 도시, 상생 도시, 성공 도시를 제시했다. 행정복합·집약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행정, 전북도 및 인접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시민 참여와 교육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고령친화 첨단산업 육성과 공구 보건 체계 개선을 통해 김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출마 선언을 마무리하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이 있는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겠다”며 “의사이자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살피는 행정을 김제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전 부시장은 김제시장 출마 선언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김제 지역 정가의 경쟁 구도는 정성주 현 김제시장, 내린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수도권 이기주의, 반도체 산업 등에 위협”

민주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필요성 주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이기주의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지 말고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의 현실과 국가 발전 방향을 외면한 채 경기도의 이해만을 대변한 전형적인 수도권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송전탑 갈등과 전력망 붕괴 위



기, 이른바 ‘해너지 내란’은 전력 대책 없이 수도권에 산업을 집중시킨 결과”라며 “이 구조적 위기를 외면한 채 ‘정상 추진’만을 외치는 것은 국가적 문제를 경기도의 지역 문제로 축소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사업 이전이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진짜 불확실성은 전기 없는 용인을 고집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산업단지. 그 자체로 반도체 산업의 최대 리스크이며, 이는 투자·공급망·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근본적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성전자 부지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 2단계 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가 전력 대책 없이 밀어붙인 졸속 사업”이라며 “단순 SK하이닉스 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빠이론 정책적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SK하이닉스를 유치했던 경향을 돌아보며 “지금은 왜 그랬는지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는 수도권 일극 산업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고수는 이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가 흐르는 곳으로 산업이 가야 하며,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수도권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용인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민·행정 잇는 가교 되겠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대변인

2026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에 이철규 전 총무과장이 취임했다. 도청 전반을 총괄 지원해 온 내부 행정 전문가가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전북도정의 내외 소통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변인은 단순히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정책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도청 소통의 최전선이다. 이철규 대변인은 32년간 현장과 조직을 두루 경험한 행정가로서, 정책 이해와 현장 감각을 겸비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입실군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입실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며 행정의 기초를 다진 뒤 전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경제, 기획, 농정, 인사 등 도청 전반을 폭넓게 경험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해 농식품산업과 식품클러스터팀장,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장, 농정과장,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도정 운영의 구조와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농정 분야에서의 경험은 현장 중심 소통의 자산으로 꼽힌다. 농정과 과장 등 농업부서에 6년간 근무하면서 그

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농촌 공동체 기반의 “농촌경제제사회서비스센터”를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농촌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 대변인은 “대변인은 도청의 얼굴인 동시에 내부와 외부의 잇는 조령자”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설명, 책임 있는 소통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은 설명되지 않으면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대변인은 정책과 도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청의 목소리를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풀어내는 소통 창구로서 이철규 대변인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 민주 당대표 특별보좌관 임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주영은(전주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임명됐다. 특히 전북 최초이자 호남 최초의 여성 권역의회의 의장으로서 보여준 상징성과 정책 리더십이 강한 민주당과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정청래 당대표의 정치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주영은 특보는 앞으로 당대표를 보좌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지역 내 실천 △당원 주권 강화 및 정당 혁신 자문 △중증장애인과 전북·전주 지역 간 정책 조율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주영은 특보는 여성 최초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며, 오는 15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군림 아닌 섬김의 리더십” | 오은미 도의원, 순창군수 출사표

“군림 아닌 섬김의 리더십으로 순창의 미래 바꾸겠다”

진보당 소속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5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제부터 진짜 순창이 시작된다”며 “군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군수로서 소멸 위기에 놓인 순창의 미래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순창이 처한 위기를 먼저 짚었다. 그는 “순창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미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며 “수천억 원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멸해 가는 순창을 막기 어렵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 군정의 리더십을 겨



나며 “현 가거기와 불통, 독선의 리더십으로는 소수만 행복한 순창은 만들 수 있어도 2만7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은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군수 선거는 순창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밭 직불금,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필수농자재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만들어 왔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정치 경험으로 순창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5대 핵심 비전도 제시했다. 먼저 임기 내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1인당 GRDP

4천만 원 달성, 인구 3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하는 3:4:3 민생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순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임실·순창·남원을 아우르는 혁신도시를 조성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를 유치하고, 순창의 발효·미생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창의 전통 장류 문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해 세계적인 발효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과 함께, 농산물 전량 판매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한편, 오은미 도의원의 출마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현 순창군수와의 맞대결이 예고되면서, 올해 6월에 치러지는 순창군수 선거는 순창의 향후 방향을 가를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활동

군산시의회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설경민, 이하 인사특위)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설경민 위원 부위원장에 윤선아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군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지질과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증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인사특위는 선임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영란·김영자·최창호·한경봉·서동완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활동계획서 채택과 증인 신청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청문준비를 완료했다.

인사특위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청취하고, 군산의 지역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능력과 조직 관리 리더십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